

Family • Faith • Holy Spirit • Mission

2025. 9.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순모임 프리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2025. 9. 7. 바셀 캠퍼스 본당 오후 2시



시애틀형제교회
COMMUNITY CHURCH OF SEATTLE

새 계절, 새 공간, 새 시작

시애틀에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고 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옵니다. 가을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성숙함과 새로운 시작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새 학년을 시작하고, 부모님들도 아이들과 함께 조금은 분주해지는 때입니다. 분주함 가운데에도 자연이 열매를 맺듯, 우리의 신앙도 열매를 맺는 성숙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며 한 달을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운 시작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빌딩 2 리모델링을 위해서 계획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순히 오래된 환경을 새롭게 고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예배와 사역이 풍성해지며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공간에서 어른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 영적인 공급과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물의 리모델링 뿐 아니라 영혼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변화는 우리의 영혼이 말씀의 기초위에 새롭게 리모델링 되고, 성령님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사모하며 맡겨드려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순모임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순 공동체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올 가을, 성도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성장의 기쁨을 누리며,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축복을 담아, 권준 드림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순모임
프리뷰

순모임용

| 생명의 삶 나눔식 소그룹 1, 9월 2일 본문, P172 |

마음 열기 Ice Breakers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대화해 보십시오.

말씀 함께 읽기 Examine God's Word

로마서 1장 8-17절을 함께 읽어보세요.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에 동 그라미나 밑줄로 표기해 보십시오.

배경 이해하기 Understand Setting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때, 로마에 방문했던 유대인들에 의해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행 2:10). 로마의 교회는 주후 49년 경에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척령에 의해서 잠시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후 54년에 즉위한 네로 황제 때에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교회에는 이방인들과 돌아온 유대인들이 함께 공존하게 되는데, 교리적인 차이로 인해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로마 교회의 좋은 소식이 주변에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끝자락에 고린도 지역에서 주후 57년경에 보낸 편지로 마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말씀 묵상 나눔 Meditate the Text

1-1 <관찰과 묵상>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 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들을 만나길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8, 11-12절)

1-2 <적용과 나눔>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지는 데 신앙 공동체가(또는 어떤 사람인)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 나누어 보세요.

2-1 관찰과 묵상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밝혔으며,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 했나요? (16-17절)

2-2 적용과 나눔 내가 복음 전하기를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지 나누어 보세요.

말씀다지기 Review the text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고자 꼭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로마서를 통해서 올바른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여 발송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힘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원함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써 전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Pray through the text

- ① 순 공동체와 형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② 구원의 능력이 들어있는 복음을 이웃들에게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01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순모임
프리뷰

순장용

| 생명의 삶 나눔식 소그룹 2, 6월 12일 본문, P174 |

마음 열기 Ice Breakers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대화해 보십시오.

말씀 함께 읽기 Examine God's Word

로마서 1장 8-17절을 함께 읽어보세요.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에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기해 보십시오.

개정개역	우리말성경	ESV
8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8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8 First, I thank my God through Jesus Christ for all of you, because your faith is proclaimed in all the world.
9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나 왕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9 하나님의 이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9 For God is my witness, whom I serve with my spirit in the gospel of his Son, that without ceasing I mention you
10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이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0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계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0 always in my prayers, asking that somehow by God's will I may now at last succeed in coming to you.
11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힘이나	11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 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1 For I long to see you, that I may impart to you some spiritual gift to strengthen you--
12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힘이라	12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12 that is, that we may be mutually encouraged by each other's faith, both yours and mine.
13 형제들이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힘이로되	13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13 I want you to know, brothers, that I have often intended to come to you [but thus far have been prevented], in order that I may reap some harvest among you as well as among the rest of the Gentiles.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4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빛을 진 사람입니다.	14 I am under obligation both to Greeks and to barbarians, both to the wise and to the foolish.
14 헬라인이나 아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 가볍진 자라		

15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리안에게로다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힘과 같으니라

15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6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돼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15 So I am eager to preach the gospel to you also who are in Rome.

16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for it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reek.

17 For in it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from faith for faith, as it is written, "The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배경 이해하기 Understand Setting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때**, 로마에 방문했던 유대인들에 의해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행 2:10). **로마의 교회는 주후 49년 경**에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잠시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후 54년에 즉위한 네로 황제 때에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교회에는 이방인들과 돌아온 유대인들이 함께 공존하게 되는데, 교리적인 차이로 인해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로마 교회의 좋은 소식이 주변에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끝자락에 고린도 지역에서 주후 57년경에 보낸 편지**로마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말씀 묵상 나눔 Meditate the Text

1-1 관찰과 묵상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 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들을 만나길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8, 11-12절)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며,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그들을 견고히 하고 피차 안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해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하여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리를 가르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모범적인 믿음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감사하며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란 특별한 능력이라기보다는 온전한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복음을 나눔으로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우고자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힘써 전할수록, 우리 안에서 복음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공동체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됩니다.

1-2 적용과 나눔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지는 데 신앙 공동체가(또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 나누어 보세요.

해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나눔으로, 공동체가 더욱 굳건하게 세워질 것을 언급했습니다(롬 1:12). 성경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넘어지거나 실패할 수 있지만,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견디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가 견디고 이기도록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기간 제자 공동체를 세우고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제자 공동체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신앙은 훌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행입니다.

2-1 관찰과 묵상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밝혔으며,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 했나요?(16-17절)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해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부족하지 않음을 말하고, **또한 그 결과 복음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로움이며, 복음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2-2 적용과 나눔 내가 복음 전하기를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지 나누어 보세요.

해설 사도 바울은 탁월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복음으로 인하여 받게 될 고통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 안에 두신 하나님의 의와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며 내가 반드시 전해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하겠습니다.

말씀다지기 Review the text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고자 꼭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로마서를 통해서 올바른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여 발송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힘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원함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써 전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Pray through the text

- 순 공동체와 형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구원의 능력이 들어있는 복음을 이웃들에게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순장님을 위한 말씀 구절 연구 Word Studies

8절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주변 지역에 전해진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아퀼라 브리스킬라를 통해서도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도로서, 바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The Pauline thanksgiving and prayer in verses 8–15 are an expression of this apostolic commission with reference to the church at Rome. ..." _Thomas R. Schreiner, Romans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36.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 구절에서 바울은 여전히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은 로마서 1장 1-4절 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언약, 성육신, 십자가 죽음,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진 신앙고백을 보게 합니다. "What should be highlighted, though, is the sphere of Paul's service, for he serves "in the gospel of his Son" [ἐν τῷ εὐαγγελίῳ τοῦ νιόῦ αὐτοῦ, en tō euangeliō tou huiou autou]. The mention of the gospel draws us back into the orbit of verses 1–4, where Paul unfolded briefly the message of the gospel." _Schreiner, Romans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36.

10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다른 이방인 지역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그 길이 막힌 것을 안타깝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11절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신령한 은사라는 표현은 성령에 속한 은사, 영적인 선물, 신령한 은혜라는 뜻입니다. 문맥을 고려하면, 복음을 통한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 전도를 통해 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원했습니다._편집부, 생명의 삶 PLUS, 18.

12절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 위에 세워져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충분한 복음을 설명함으로, 함께 복음 안에서 격려하고 성장하기를 표현했습니다. 서로 복음에 대해 증거하고 나눌 때, 복음의 능력이 공동체 안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The Roman church was a vital one, and thus Paul affirmed that the encouragement and edification would be mutual." _Schreiner, Romans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37.

13절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많은 지역에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신자들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도 이와 같은 열매를 맺고자 원했습니다. 본문에서 열매의 의미는 복음을 믿는 신자 또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의미합니다. "his service is in the gospel (v. 9), the reason he wants to visit is to impart a spiritual gift so that they would be strengthened (v. 11), he desires to preach the gospel (v. 15) in Rome in order to bear fruit as he had elsewhere among the Gentiles (v. 13)." _Schreiner, Romans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37.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 다 내가 빛진 자라 바울은 로마 교회의 구성을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두가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주 안에 연합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소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본문에 이방인들에게 빛진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Rather, Fee (1994: 487–88) observes rightly that the gift mentioned here relates directly to the purpose of the Roman letter. The Roman Christians needed to understand the Pauline gospel, which proclaims the unity of Jews and Gentiles in Christ. … ‘Verse 14 emphasizes one of the major themes of the opening, indicating that Paul aspired to proclaim the gospel in Rome because of his apostolic vocation to the Gentiles.’” Schreiner, Romans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39.

16절 a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당시 문학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며 부인한다는 의미입니다(막 8:34-38). 둘째로 복음을 전할 때 만나는 고난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딤후 1:8, 12).**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공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난이 있더라도 견디겠다는 표현입니다. “The asseveration that Paul is not ashamed in Rom. 1:16, therefore, refers both to his willingness to confess the gospel in public and the overcoming of fear. These are not empty words in Paul’s case since he had already endured much suffering (2 Cor. 11:23–27).” Schreiner, Romans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41.

16절 b 이 복음은 …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자불하심으로, 신자들은 구원과 자유를 얻게 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신자들을 효과적이고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The gospel is the power of God that “results in” (*εἰς*, eis) salvation. The $\delta\circ\nu\alpha\mu\iota\varsigma\theta\circ\o$ (*dynamis theou, power of God*) in the gospel signifies the effective and transforming power that accompanies the preaching of the gospel. Elsewhere Paul describes the gospel as “the word of the cross” ($\delta\circ\lambda\circ\gamma\circ\varsigma\circ\tau\circ\sigma\circ\tau\circ\alpha\circ\upsilon\circ\rho\circ\o$, *ho logos ho tou staurou*) that is “the power of God ($\delta\circ\nu\alpha\mu\iota\varsigma\theta\circ\o$) to us who are being saved” (1 Cor. 1:18).” Schreiner, Romans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41.

16절 c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복음의 보편적 전파를 바라보며 이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서 안에서도 바울은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것을 지속적으로 언급했습니다. “Paul wants to emphasize the universal reach of the gospel, that it extends to both Jews and Gentiles. Indeed, the universality of the gospel is a theme that resounds throughout Romans (2:5–11; 3:9, 22–23, 29–30; 4:9–12, 16–17; 9:24; 10:11–13; 11:32; 15:8–12).” Schreiner, Romans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41.

17절 a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17절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17절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의는 죄인들을 향해 주시는 선물로서 법적인 의로움입니다.** 죄인들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데, 이러한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즉,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신자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결

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Referring to this righteousness as “alien” also accords with the Pauline gospel since righteousness is “a gift of God.” It is not intrinsic to human beings by nature but is a divine gift. Nor is it the case that human beings are righteous by virtue of any works that they have done. Nonetheless, many scholars maintain that God’s righteousness also is a divine activity that transforms the lives of believers. Significant arguments also support the view that Paul is speaking of righteousness as God’s saving power.” _Schreiner, Romans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44.

17절b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적용됨을 강조합니다. 믿음을 두 번 사용한 것은, 믿음을 강조하려는 의미로 보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즉 칭의를(Justification) 경험하게 됩니다. “Thus God’s righteousness is experienced by faith from first to last (17c).” _Schreiner, Romans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49.

17절c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 제국을 통한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가운데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구절을 비율이 인용했습니다. 바울은 “살리라”라는 단어를 현재적인 의미 뿐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여러 번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구절은 “In Paul ζ ἀ ω is often eschatological (e.g., Rom. 6:10, 11, 13; 8:13; 10:5; Gal. 2:19–20), and it bears such a meaning here. Those who believe will obtain life eschatologically. “To be righteous by faith” and “to live by faith” are alternate ways of communicating the same reality.” _ Schreiner, Romans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48.

02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순모임
프리뷰

순모임용

| 생명의 삶 나눔식 소그룹 4, 9월 22일 본문, P178 |

마음 열기 Ice Breakers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인해 팝박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말씀 함께 읽기 Examine God's Word

로마서 8장 31~39절을 함께 읽어보세요.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에 동 그라미나 밑줄로 표기해 보십시오.

배경 이해하기 Understand Setting

로마 시대에 황제들이 신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황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같이 높임을 받고, 신들 중 한 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 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the Lord)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the Lord)이라는 표현은 당시 황제에게 사용하던 표현인데, 예수님의 황제보다 더욱 위대하며 더욱 높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했고, 점차 로마 제국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로마 사회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 충돌점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성찬식에서 사용되는 표현들, 예를 들어 뺑과 포도주를 나누며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으라는 표현이 식인 의식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회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집단으로 인식되었고, 로마 황제 네로 시대에는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 나눔 Meditate the Text

1-1 < 관찰과 묵상 > 바울은 우리가 고발당하지도, 정죄당하지도 않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 했나요? (33~34절)

1-2 < 적용과 나눔 > 예수님이 허물 많은 나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내게 어떤 위로와 소망을 주나요?

2-1 관찰과 묵상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들로 무엇을 언급했나요?(35, 38-39절)

2-2 적용과 나눔 나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다지기 Review the text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고발당하고,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며 더 나아가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해치려고 하는 일들이 로마 제국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도들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들도 큰 고통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Pray through the text

- ① 믿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 주소서.
- ②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마음 열기 Ice Breakers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인해 팝박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말씀 함께 읽기 Examine God's Word

로마서 8장 31-39절을 함께 읽어보세요.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에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기해 보십시오.

개정개역	우리말성경	ESV
31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과 사랑> 그려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31 What then shall we say to these things?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주신 이가 어찌 그 이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 주신 분께서 어떻게 이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32 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but gave him up for us all, how will he not also with him graciously give us all things?
33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3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33 Who shall bring any charge against God's elect? It is God who justifies.
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4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34 Who is to condemn? Christ Jesus is the one who died--more than that, who was raised--who is at the right hand of God, who indeed is interceding for us.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팝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35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Shall tribulation, or distress, or persecution, or famine, or nakedness, or danger, or sword?
36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6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36 As it is written, "For your sake we are being killed all the day long; we are regarded as sheep to be slaughtered."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37 No,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8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능력도,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끊을 수 없습니다.

38 For I am sure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or angels nor rulers, nor things present nor things to come, nor powers, 39 nor height nor depth, nor anything else in all creation,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in Christ Jesus our Lord.

배경 이해하기 Understand Setting

로마 시대에 황제들이 신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황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같이 높임을 받고, 신들 중 한 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the Lord)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the Lord)이라는 표현은 당시 황제에게 사용하던 표현인데, 예수님이 황제보다 더욱 위대하며 더욱 높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했고, 점차 로마 제국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로마 사회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 충돌점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성찬식에서 사용되는 표현들, 예를 들어 뺨과 포도주를 나누며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으라는 표현이 식인 의식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회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집단으로 인식되었고, 로마 황제 네로 시대에는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 나눔 Meditate the Text

1-1 관찰과 묵상 바울은 우리가 고발당하지도, 정죄당하지도 않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나요? (33-34절)

우리가 고발당하지도, 정죄당하지도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해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의롭다고 칭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간구하다라는 동사는 법정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탄이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호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1-2 적용과 나눔 예수님이 허물 많은 나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내게 어떤 위로와 소망을 주나요?

해설 우리는 때로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따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더 이상 슬픔과 낙심의 자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도 두려움을 털고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려움과 슬픔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이 귀한 기도의 소식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2-1 관찰과 묵상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들로 무엇을 언급했나요? (35, 38–39절)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 일, 장래 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입니다.

해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기록을 통해서 사도바울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존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과 자녀들의 구원의 관계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전하며 평안합니다.

2-2 적용과 나눔 나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깊은 슬픔과 고통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우리의 기도 생활도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으며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구절은 성도의 견인에 대한 교리의 근거 구절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포기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견인하셔서 성화와 영화에 이르게 한다는 교리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지로라도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의심의 구름이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밀씀다지기 Review the text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고발당하고,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며 더 나아가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해치려고 하는 일들이 로마 제국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도들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들도 큰 고통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Pray through the text

- ① 믿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 주소서.
- ②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순장님을 위한 말씀 구절 연구 Word Studies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도 바울은 30절 이후에, 31절부터 비교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일 즉, 귀한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작은 대적들의 방해로부터 보호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Since he has done the greatest thing imaginable—sacrificing his Son to death for their sake—then it surely follows that the Father in his grace will grant them everything along with his Son." _Schreiner, Romans in Baker Commentary, 294."

33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구절은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법정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고발당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경험합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칭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Believers can face the day of judgment with confidence, for those whom God has chosen as his own will certainly not be accused on the day of judgment. God has declared them to be right in his sight, and thus those who would accuse believers will not successfully establish their case." _Schreiner, Romans in Baker Commentary, 296.

34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죽으신 후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표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통치자로 앉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곳에서 신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사실은, 고통과 팝박을 경험하는 신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The resurrection of Jesus was inevitably accompanied by his exaltation. Thus in fulfillment of Ps. 110:1 he reigns at the right hand of God. Finally, he intercedes on behalf of the saints.[15] This intercession should not be separated from his death on behalf of his people; rather, his intercession on behalf of the saints is based on his atoning death." _Schreiner, Romans in Baker Commentary, 297.

37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그리스도 동사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서서 입도적인 승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변함없는 승리를 표현했습니다._두란노 편집부, 생명의삶 PLUS 9월호, 206.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한다는 동사가 1인칭 완료 직설법으로 사용되었는데, 과거에 깨달았던 확신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이미 완료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문 이후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점총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요소들이 나열되었습니다. 유대적인 측면에서 밀하는 존재들, 시간의 측면, 우주적인 힘 등이 있더라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언급했습니다. 두란노 편집부, 생명의삶 PLUS 9월호, 208.

39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크신 위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십니다._두란노 편집부, 생명의삶 PLUS 9월호, 209.

• 9월 주요 사역일정과 기도제목 •

주요 사역 일정

- 9월 21일에 진행되는 54주년 설립예배를 통하여 세 개 캠퍼스들이 하나되어 위대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게 하소서.
- 9월 1일부터 개강한 37기 전도폭발 과정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군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 9월 3일에 개강한 수요 여성 가을예배에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내려 주시고, 모든 참여자들이 힘을 얻고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소서.
- 9월 6일부터 개강한 HJI 가을학기를 통하여 참여하시는 모든 어른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게 하소서.
- 9월에 개강한 49기 일대일 저자양육 양육자반을 통해 지원자들이 훈련을 받고 성숙한 양육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 9월에 진행되는 양육강좌(한어권 큐티학교, 영어권 큐티학교, 마가복음으로 세우는 가족관계2)에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소서.
- 9월 12~14일에 진행되는 관계기술훈련 리트릿에 은혜를 주시고 8주 동안 진행되는 실습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 기도제목

- Sonlight 학생들이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면서 육체적으로도 성장하고, 영적으로도 성장하게 하시며, 학생들을 영적으로 아끌 봉사자들을 보내주소서.
- Coram Deo 학생들이 새학기를 맞아 두려움보다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들을 믿음으로 잘 붙잡게 기도해주세요.
- NEXT 학생들이 새학기를 맞아서 새로운 친구관계를 잘 세우게 해 주시고, 교회에서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소서.
- EW College 학생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시험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으로 이기게 하소서.
- NEW Wave 청년부에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팀리더십과 소그룹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 순모임의 가이드라인 •

순모임은 2주마다 순원들이 돌아가면서 집을 오픈하고,
다음과 같은 모델을 참고하여, 순장님의 자랑에 따라서 순모임을 가진다.

모임영역(90분)	모임 내용	모임 방향
환영 10분	아이스브레이크를 위한 질문을 준비하여 마음을 열도록 도우라.	서로를 향하여
경배 10분	주님께만 초점을 두고, 높여드리라. 주님을 모임 가운데 초대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 적용 40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두고 나누라.	말씀 실천을 향하여
기도 20분	서로의 기도제목, 공동체,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서로를 향하여
사역 10분	순 내에서 전도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라. 선교를 위해서도 순모임에서 함께 기도하라.	불신자를 향하여

- 돌아가면서 집을 오픈하되, 다과는 최소한으로 준비한다.
- 주중에 순장의 카톡과 질문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답을 한다.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10가지 제안 •

10가지 제안

- 자신의 필요를 나누는 투명함의 모델이 되라.
- 정해진 시간 안에 모임을 끝내고 그 후에 교제를 허용하라.
- 당신의 가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개방하라.
- 소그룹 안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라.
- 서로를 섬기고 오락이나 쇼핑 등 일상의 활동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하라.
- 가능하다면 주일 예배 때에는 함께 앉으라.
- 사람들이 실제적인 도움을 얻도록 각 소그룹 생활의 단계(형성기, 갈등기, 평정기, 실행기)를 가르치라.
- 소그룹 모임 때까지 서로 전화 통화를 하라.
- 상호 책임있는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소그룹 멤버들을 격려하라.
-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역할을 분담하라.

출처 한국NCD교회개발원, 전인적 소그룹을 위한 건강한 소그룹의 4가지 방향
(과천: 한국NCD교회개발원, 2023), 37에서 수정함.

Family • Faith • Holy Spirit • Mission

2025. 9.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순모임 프리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2025. 9. 7. 바셀 캠퍼스 본당 오후 2시



시애틀형제교회

COMMUNITY CHURCH OF SEATTLE

엮은이 | 권준

펴낸이 | 공동체 목회자팀

이메일 | hyungjaecommunity@hyungjae.org

주 소 | 3727 240th St SE, Bothell, WA 98021

연락처 | 425-488-1004